



안녕하세요!, 안미령수녀입니다. 저는 한국의 작은 도시 목포에서 태어났습니다. 항구도시 '목포'는 네 명의 미국수녀님들께서 한국 파견을 받고 1960년 11월 3일에 도착한 곳입니다. 물론 당시 저는 먼 훗날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될 미국 수녀님들이 제가 태어나기 열흘 전에 한국, 그것도 저희 동네로 이사 오셨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지만요.

어린 시절 제가 살던 곳은 집 뒤로 산과 들이 있고, 앞으로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 산은 공동묘지였지요, 간혹 친구들이 무섭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지만 저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지요.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부활할 영혼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가끔은 무덤가에서 놀다 잠이 들기도 했지요.

다섯 살쯤 되었을 때 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산길을 가면서 "우리 데레사(미령의 세례명)는 커서 무엇이 될까?, 수녀

님도 좋고, 선생님도 좋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녀님'도 되고 '선생님'도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의 수도성소는 싹틔워졌고, 1982년 2월 사랑의씨튼수녀회에 입회하였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 부모님, 형제들과 나누는 사랑, 자연과 무덤에서의 체험, 입회 후 수도공동체의 삶! 이 모두가 하느님 사랑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메리아그네스, 양노린, 민지인수녀님과 함께 살았던 기억, 노엘 수녀님을 비롯하여 관구간 체험으로 한국을 다녀가신 모든 수녀님들과의 사랑도 기억합니다.

저는 현재 미술치료사(Art Therapist)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도회 사도직인 강진군다문화센터에서 미술치료, 상담 그리고 우리 수녀님들의 영적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형태로 마음과 정신의 병을 앓고 있거나 고통 중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분들을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직을 통해 회헌 초기규칙(1821)에 쓰여진 「정신적으로 병

든 이들, 수치심 때문에 자신의 필요를 감추어야 하는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은총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 모든 하느님 섭리에 감사하고, 저에게 신앙의 유산과 천상교회의 기쁨을 안겨주고 몇일 전에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시몬께도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Hello, my name is Ahn, Me Ryong. I was born in Mokpo, a small city in Korea. The port city, Mokpo, was the place that four American sisters were missioned and arrived on November 3, 1960. Of course, I had no idea that the American sisters who would live in the same house in the distant future had moved to South Korea ten days before I was born.



As a child, the place where I lived was surrounded mountains and the sea. And

there was a cemetery on the hill right beside our house.

Sometimes I was asked by my friends if I was scared, but I was not scared at all. Because my grandmother always taught me that the souls who would resurrect in a future were gathered together there. So sometimes I used to fall asleep while playing at the grave.



When I was about five years old, my grandmother held my hand and walked along the mountain path, saying, "Teresa! (my baptismal name) What will you become when you grow up? I wish you become a religious sister or a teacher!" So I said that I would be 'Sister' and



'Teacher'. Since then, I began to think of becoming a sister and, in February 1982 I entered our community.

The love that I shared with my grandmother, my parents, my brothers and sisters in my childhood, the experience in nature and graves, and the community life after I entered! All of this was God's love. I also remember the love of Sisters Mary Agnes, Mary Noreen Lacey, and Jean Malloy, and Sister Noel, and all the American sisters who visited Korea through the interprovincial exchange program.



I am currently working as an art therapist in Gangjin multicultural center. In addition to that, I am involved in counselling and spiritual companion with our sisters. Every day I meet children, teenagers, adults and the elderly who suffer from mental illness or other illness. Through this ministry I am spending a time of grace with Christ amidst



"the mentally sick, those who should conceal their need for shame" described in the Early Rules (1821).

Thankful for the providence of God, I also give thanks to my beloved father, Simon, who gave me the legacy of faith and the joy of the celestial church. He passed away a few days ago.